



전북도교육청 전북수학체험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KBS전주방송총국 야외 잔디광장에서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제9회 전 북 수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한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수학, 이렇게 재미있었나?” ... 즐기면서 배우기

수학체험 한마당 성료
65개 부스 설치 운영
학생·교사·부모 호응

전북도교육청(원장 김영찬) 전북수학체험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KBS전주방송총국 야외 잔디광장에서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제9회 전 북 수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수학체험 한마당은 수의 세계, 퍼즐의 세계, 알고리즘의 세계, 평면의 세계, 입체의 세계, 곡면의 세계, 키즈 부스, 수학전시, 수학클리닉(초등, 중등 상담), 수학대회, 수학산책, 수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 등 12개의 소주제로 65개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전년대비 체험부스 65%가 새로운 주제로 설치 운영되어 체험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학체험의 마당을 마련했다.

들기 대회, 초등과 중등의 다양한 변형오목게임,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 블럭 높이 쌓기 대회 등이 이틀 동안 꾸준히 열려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나 꽃이 있는 학교나 숲 어느 곳에 서나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한옥마을 수학 산책과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인성교육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전북

초·중·고 64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인 '수학 구조물 만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일대에서 이루어진 '수학 산책'은 나무의 키 재기, 가지 성장의 법칙, 단풍나무 씨앗의 수학적 원리 및 놀이하기, 풀잎을 이용하여 배와 물레방아 만들기 등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수학의 원리를 찾고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무

정해은 기자

10명 중 8명 이상 “학교급식 맛있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88.6점... 매년 꾸준히 향상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급식학교 만족도가 88.6점으로 조사돼 지난해에 비해 1.0점 상승했으며 매년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별 학생 84.9점, 학부모 91.6점, 교직원 95.6점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지난해에 비해 학생 1.2점, 학부모 0.5점, 교직원 0.8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 만족도는 초등학교 92.6점, 중학교 87.7점, 고등학교 80.4점, 특수학교 91.9점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이 매년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점수는 2012년 82.6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84.3점, 2014년 85.8점, 2015년 86.9점, 2016년 87.6점, 2017년 88.6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 학교급식 품질 특성 만족도도 급식의 질, 급식 운영, 급식 환경 등 모든 조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아침 식사에 대한 식습관 조사에서는 '항상 먹는다'는 학생이

56.5%, '주 3~4회 먹는다' 14.4%, '주1~2회 먹는다' 7.9%, '거의 먹지 않는다' 21.2%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이용자인 학생 및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급식의 급식운영 개선 및 위생·안전성 확보, 식생활 교육 등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중 조리학교 550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1만2629명, 학부모 2750명, 교직원 5474명 등 총 2만8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급식의 질 및 급식운영, 급식환경 등을 가늠할 수 있는 13개 급식품질 속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별, 학교 급별 만족도와 아침식사에 관한 식습관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정해은 기자

외국인 유학생 300명에 무료진료 제공

전북대 - NGO 연계 의료봉사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재정적 여건 등으로 질병 진료에 취약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무료 진료는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국제의료봉사 NGO 브릿지의료인화와 연계해 지난 주말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일원에서 이뤄졌다.

진료과목은 약국을 포함하여 내과, 안과, 영상의학과(초음파, X-RAY),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학과로 구성되었으며 15명의 의료진과 25명의 자원봉사 그리고 전북대 13명의 유학생들이 각 나라 유학생들을 위해 봉역을 지원하며 진료를 이어갔다.

지난 23일부터 4일 동안 진료신청을

통해 270여명의 학생들이 진료를 예약했으며 28일 당일에는 과테말라와 네팔 등 총 20개국 300명 학생들이 진료를 받았다.

전북대 유학생뿐 아니라 교환학생, 졸업생, 유학생 가족들에게 까지 무료 진료가 제공돼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던 모든 유학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다.

특히 치과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몰렸고, 학생들은 충치치료, 스케일링 뿐 아니라 발치 진료도 받는 등 실제 병원처럼 진료가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의료봉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많은 유학생들이 앞으로도 타지에서 유학하는 데 불편함 없이 우리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내부 썩은 나무, 상처없이 진단·관리방안 논의

전북대 수목진단센터, 비파괴 수목단층분석 세미나 개최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센터장 한상섭 교수)가 지난 30일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분관 및 교내 일원에서 '비파괴 수목단층분석을 활용한 수목 내부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는 전북대 나무병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산림자원과 학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참석해 비파괴 방법을 이용한 수목 내부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세미나에서는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이 비파괴수목단층분석의 원리에 대해 주제 발표한 것을 비롯해 푸른공간나무병원(주) 박영의 원장이 비파괴수목단층분석의 사용방법을, 대 한나무병원 이동호 원장이 비파괴수목단층분석을 이용한 진단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현장시연도 이어졌다.

'비파괴 수목단층분석'이란 수목이 자라는 동안 고사된 가지나 줄기의 상처를 통해 목질부가 썩는 경우가 많아 지며 일부는 나이가 들어 주간의 굵기가 굵어지면서 내부 조직이 썩어 들어 가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주 심각한 피해가 육안에 의해 식별이 되지 않으면 증상을 감지할 수 없어 바람이나 폭설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해 쉽게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자연재해 및 관리 부실로 인한 보호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부후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노거수의 부후 정도를 파악하는 건강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해은 기자

